

인생이 꼬일 때 읍을 기억하라

성경말씀: 읍16:1-22

읍과 친구들의 2차 논쟁, 엘리바스는 여전히 동일한 것 주장, 종교 시스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읍의 항변: “인생은 꼭 그렇지 않다. 의로운 자도 고통당할 수 있다.” 종교: 잔인하다. 스스로 의롭게 만든다.

예수님은 종교를 부수러 오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신다.

16-17장은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한 읍의 반박

읍의 세 가지 요청: 1. 친구들에게, 동정심을 베풀라(16:1-14), 2. 하나님에게, 제발 공의를 베푸소서(15-22), 3. 이제 충분하니 죽여 주소서(17장).

동정심을 베풀라

읍의 세 친구들 여전히 읍을 비난함. 그의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음

읍의 말: 너희는 속이는 개울(6:15), 쓸모없는 의사(13:4), 형편없는 위로자(16:2)

miserable, 형편없다. 파렴치하다, 구질구질하다. 위로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게 만드는 자
너희 같은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4), 나 같으면 그리 하지 않을 것이다(5), 매우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한다: 내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7-14), 9-11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읍의 반응(15-16). 그럼에도 이것은 내 불의 때문이 아니다(17).

고통으로 인해 죽기를 바라지만 죽기 전에 호소하고 싶다(18).

호소 내용: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21). 같은 내용 9장, 10장, 13장
분명히 증인이 있다(19). 내게 변호자가 있으면 좋겠다(21).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분이 이미 있다(요일2:1-2; 히2:17-18; 4:14-16)).

죽여 주소서

변호자를 원하는 이유, 나는 곧 죽을 것이다(16:22; 17:1)

자기 친구들은 보증을 서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3-5, 10). 그들은 위로를 준다며 아침을 한다(5).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6, 8).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11-12).

그래서 이제 나는 무덤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벌레들이 나를 먹을 것이다(13-14).

읍은 삶을 포기하였으나 주님은 읍에게 그가 구한 죽음을 주지 않았다.

이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 그래서 이 고통 이후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신다.
“오래 살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고백의 의미

복음의 관점으로 읍기 보기

2차 논쟁에서 읍의 대답을 보면 1차 논쟁의 대답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을 내면 읍기의 의미가 퇴색된다. “왜 하나님은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가면서 읍기를 길게 기록하셨을까?”

롬15:4, 고전10:11, 소망과 위로 그리고 훈계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를 통해 종교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종교 시스템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읍기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한다.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구약 성도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12:2의 우리 믿음의 창시자, 독생자를 죽인다(11:12). 부활을 믿었다(19).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살린 자, 모세와 엘리야는 대언자, 여호수아는 상속 유업을 나누어 주는 자,
다윗은 왕권을 가진 왕,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 등

읍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지 않을까? 2차 논쟁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종교인들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분이 생각나지 않는가?

읍은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는 절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무죄하다.

읍기는 무죄한 자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 줌

욥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최고로 고통을 당함. 이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나?
욥기의 주인공 욥은 무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표
욥을 보면서 무죄하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되어야 한다. 욥기의 관전 포인트
욥은 진노의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제부터 욥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살펴보자.

종교 시스템과 종교인들은 다 형편없는 위로자(16:2), 그들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3)
말해도 고통, 참아도 고통(6), 나는 완전히 황폐해졌다(7),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7). 다 나를 버린다.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원수들이 달려든다(9-10).

경전치 않은 자들의 손에 내던져졌다(11), 과녁이 되었다(12). 만신창이가 되었다(13-14).
예수님의 일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곁을 떠난다. 일가친척 형제들도, 겨우 여인들 몇 명과 12제자(7)
아버지 하나님께서 짐승을 몰듯 그분을 십자가로 내모신다(11-12).

12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한다.

주변의 군인들, 백성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뺨을 때린다. 수염을 뽑는다. 결국 제자들도
다 도망간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결과가 16:13-14절이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증인이 있음을 말하고 누군가가 변호해 주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는 결국 죽지 않는가?(17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일대기가 욥기에 그대로 들어 있다.

시편 22편

1절: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 욥의 상황

그럼에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3-4).

악한 상황(6-8)

악한 상황(11-14, 16-18)

호소(19-20)

소망의 결실(24)

욥기의 결론(28, 31)

〈인생이 꼬일 때 욥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심정: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시22:1).

욥기가 보여 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가? 부부, 부모자식, 재정, 직장, 인간관계, 안 풀린다.
그런데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다.

욥의 결말이 분명히 보여 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를 보여 준다(히12:2).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스터리, 가장 pessimistic, 가장 optimistic

지난 금요일 이사야서 36-39장, 히스기야의 일생

경건한 사람, 아시리아의 침공, 선하게 살았는데도 몸에 병이 온다.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바울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온다.

욥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라도 해결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욥의 결말, 예수님의 결말이 그렇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불의를 당해도 인생을 이기며 나가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도 기도하며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